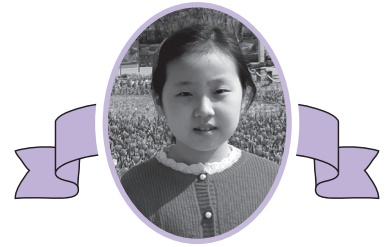


동상





외갓집 가는 길



박정연 | 대전 성룡초등학교 3학년

“정연아, 이번 명절에도 외할아버지 집에 가?” 나의 외갓집은 경상남도 창원이다.

내가 살고 있는 대전에서 창원까지는 약 230km, 자동차로 3시간 정도 거리로 아주 멀다. 친구들이 그렇게 멀리까지 가는데 지겹지 않냐고 묻곤 한다. 물론 3시간 동안 자동차 안에서 가만히 앉아만 있는 건 정말 지루하고 따분하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다.

아빠가 운전하는 자동차 창문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우리나라의 산과 들, 강의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다. 자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 멋스러운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 가족을 맞아준다. 내가 태어난 봄은 겨울 동안 추위에 덜덜 떨고 있던 가지만 앙상한 나무들이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알록달록한 예쁜 새 옷을 갈아입는 계절이다.

새 움이 트는 나무들 사이로 나비들도 따뜻한 바람을 타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신나게 노는 듯하다. 산과 흙, 그리고 바람의 냄새는 항상 내 옆에 있는 엄마 냄새처럼 향긋하고

포근하다. 강물도 반짝반짝 은구슬처럼 빛이 난다. 잔잔한 물결을 보고 있으면 스르르 졸리기도 하다. 엄마가 태어나신 여름의 모습은 앞으로 보아도 초록, 옆으로 보아도 초록, 뒤로 보아도 초록, 나를 둘러싼 온 사방이 초록색으로 물들어 있다. 조금씩 다르게 칠해진 초록색 방에 들어온 듯하다. 밝은 초록, 진한 초록, 모두 아름다운 초록이다. 그래서일까? 엄마는 초록색깔이 제일 좋다고 하셨다. 햇별이 뽀뽀 내리쬐는 한여름의 햇별은 폐쟁이 동생에게 화가 난 내 마음처럼 열이 나는 것 같고,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화산처럼 뜨겁다. 하지만 초록색으로 뒤덮인 산과 나무들을 타고 온 초록바람이 뜨거운 열을 시원하게 식혀준다. 동생이 태어난 가을에는 잠자리 떼가 같이 가자며 우리를 졸졸 뒤따라오는 것 같다. 초록색이었던 나무들과 들판이 울긋불긋하게, 초록들판은 노란색 황금들녘으로 바뀐다. 가끔 들녘을 보면 밀짚모자를 쓰고 두 팔 벌려 새를 쫓는 허수아비와 농부들이 삼삼오오 모여 추수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평소에는 앉아 장난만 치던 동생도 “우와~” 하면서 보게 만드는 신기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아빠가 태어나신 겨울에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산과 땅, 나무들이 우리를 맞이한다. 가끔 너무 천천히 운전하는 아빠에게 “조금만 빨리 가요.” 라고 말하면 아빠는 웃으면서 “정연이 눈 구경 많이 하라고 천천히 가는 거야.” 라고 하시곤 한다. 너무 추워 따뜻한 털 잠바를 입고 가는데 신기하게 창원에 도착하면 털 잠바가 가끔 덥게 느껴질 때가 있다. 루돌프 사슴 코처럼 빨강던 내 코와 볼은 언제 그랬냐는 듯 따뜻해진다. 하얀 눈이 산과 들을 이불처럼 잘 덮어주어서 따뜻해진 걸까? 엄마께서 가끔 “정연이가 엄마 뱃속 열 달 동안 있을 때, 창원에서 대전까지, 대전에서 창원까지 기차 타고 다니면서 엄마가 창밖이 참 예쁘다고 정연이한테 얘기해주곤 했는데, 기억나?” 라며 웃으시며 이야기하신다. “엄마, 제가 어떻게 기억해요~” 엄마는 나에게

내가 기억나지 않을 때부터 우리나라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쳐주신 것 같다. 그래서인지 가끔 산 중턱이 깎여 험뎠고 있는 나무가 베인 듯한 모습을 볼 때면, 상처가 난 나의 피부를 보는 것처럼 아프고 따가운 느낌이 든다. 산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 것 같아 미안하다.

자연이 엄마라면 우리는 아기인 것 같다. 자연은 우리가 이렇게 상처를 주어도 늘 우리를 품어주니까. 외갓집은 창원이라는 먼 도시에 텅그러니 있는 게 아니다. 대전에서 창원까지 가는 그 모든 길이 나의 외갓집이다. 어릴 적 내가 외갓집을 오고 갈 때마다 보았던 산과 들, 땅, 물, 공기의 향긋한 향기가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나중에 커서 나의 아이에게 엄마의 외갓집 가는 길을 이야기해 줄 그날이 올 때까지 지금 모습 그대로 남아있었으면 좋겠다.